Revelation. Phillipsburg: P&R.
J.S. Russell. 1878 (1996). The Parousia: a critical inquiry into the NewTestament doctrine of our Lord's Second Coming. Bradford: KingdomPublications.
제임스 B. 조르단. 2005. 계시록의 구속사적 연구 (Studies in the Revelation). 그리심.

모세의 선지자적 권위(민 12)

Moses' Authority as a Prophet

신득일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서론 ▪ 106
1.1. 정경의 상태 ▪ 106
1.2. 본문의 상태 ▪ 108
2. 본론: 주석적 설명 ▪ 109
2.1. 미리암과 아론의 반란 ▪ 109
2.2. 하나님의 심판 ▪ 112
2.3. 모세의 기도 ▪ 118
3. 결론: 적용 ▪ 119

요 약

모세의 선지자적 권위(민 12)

본고는 민수기 12장의 반란 사건을 계시역사적인 관점에서 주석한 것이다. 본문은 마치 몇 개의 전승을 편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진 통일성있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모세의 선지자적인 권위에 관한 것이다. 이 반란 사건에서 모세의 선지자 직분에 대한 도전하기 위해서 그의 결혼문제가 실마리로 사용되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결하셨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유일한 선지자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데 충성된 일꾼임을 인정하셨다. 동시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다. 그녀는 이 반란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문둥병은 미리암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구원을 위태롭게 한다.

모세의 선지자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가 기록한 오경을 믿을 수 없고, 오경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선지자적 권위는 현대교회에서도 여전히 인정받아야 한다.

주제어
모세의 권위, 미리암, 아론, 반란사건, 문둥병, 꿈과 이상

Moses' Authority as a Prophet

Abstract

Moses' Authority as a Prophet

Prof. Dr. Deuk-Il Shin

This article is an exegetical-homiletical study about a rebellion in Numbers 12 on the basis of revelational history. It appears that the text is composed of several stories but it has a unity of narrative with one apparent theme: it is about Moses' authority as a prophet. Miriam and Aaron used his intermarriage with a Cushite as a means to challenge his prophetic authority.

Yahweh took the initiative to solve this matter. He recognized the uniqueness of Moses' office by mentioning his special medium of prophecy: "With him I speak mouth to mouth." At the same time, Miriam was leprous because she agitated this rebellion. She should be shut out of the covenantal community of Israel. It means that her salvation is threatened.

Those who do not acknowledge Moses' special authority as a prophet cannot accept the Pentateuch as an authoritative book written by him. Those who do not take the Pentateuch as an authoritative book cannot believe Christ. Thus, the uniqueness of his prophetic position is still relevant.

Keywords

Moses' authority, Miriam, Aaron, rebellion, leprosy, dream and vision

1. 서론

본문은 민수기의 중요한 내용인 '광야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 중에 하나다. 이 부분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모세의 선지자 직분에 대한 도전이다. 신명기는 참선지자의 원형으로서 모세를 제시하고(신 18:18)[1], 그 책의 후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없었다(신 34:10)[2]고 하면서 그 이유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자라고 한다. 민수기 12장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모세의 선지자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특별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적으로 다루는 것은 선지자로서 모세의 권위, 예언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고에서 이 본문은 비평부분을 제외하고는 설교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시역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주석할 것이다.

1.1. 정경의 상태

민수기 12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얽혀있는 것 같다. 즉 모세의 결혼 문제와 선지자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이 구성을 두고 Fritz는 민 12장에서 두 가지 사건이 어설프게 결합된 모습이 이 장이 통일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3]

* 신득일 교수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B.A., M.Div.) 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에서 교의학을 공부했다(Th.M.수료).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하고(Drs.), 남아공 노스웨스트 대학교에서 법궤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Ph.D.).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The Ark in Redemptive History*라는 책을 출판할 준비를 했다. 현재 저서로는 『히브리어 문법』과 역서로, 『욥기강해』, 『성경지리입문』 등이 있다.

1)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2)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웨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역사문헌비평의 입장에서 Jenks는 이 본문을 엘로힘 문서(E)로 돌린다.[4] 이것은 출애굽기 33:7-11과 민수기 11:16-17에서 '회막 앞에 나오는 것'이 이 문서의 특징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공통된 문구에도 불구하고 각 본문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본문 전체에서 '엘로힘'이란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 한번 사용되었을 뿐이다(13절). Vaulx는 아론의 역할과 모세의 기도와 미리암이 칠 일간 진밖에 머무는 것은 엘로힘 기자가 덧붙인 것이라고 한다.[5] 사실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웨'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Fritz, Coats와 Vaulx는 전체적으로 '야웨 문서'(J)로 본다.[6] 여기에대해서 Budd는 이 본문을 야웨문서로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만 야웨기자의 작품으로 오래된 문헌임을 강조하고 야웨 기자가 다양한 짧은 전승의 자료를 편집해서 기록했다고 한다.[7] 그는 '지면'(3절), '내 주여'(11절), '벌하다'(11절)를 야웨기자의 언어로 보았다. 그러나 문서설 자체가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전승사 비평에 따르면 Gressmann은 이 본문이 이야기 끝에 나오는 하세롯에 얽힌 원인론적 이야기라고 한다.[8] 이것은 '농장들'을 뜻하는 하세롯의 의미와도 맞지 않고 16절에는 그 사건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언급도 없다. 그는 본문의 사건을 아론, 미리암, 나답, 아비후, 고라로 대표되는 '엘 종교'와 모세와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야웨

3) Volmar Fritz, *Israel in der Wüste*, Marburg: N.G. Elwert Verlag, 1970, 18.

4) A.W. Jenks, *The Elohist and North Israelite Traditions*,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7, 54-55.

5) J. de Vaulx, *Les Nombres*, Sources Bibliques, Paris: J. Gabalda et Cie Éditeurs, 1972, 159.

6) Fritz, op.cit., 18-19; G.W. Coats, G. W. *Rebellion in the Wilderness*, Nashville: Abingdon Press, 1968, 161-164; Vaulx, op.cit., 158-159.

7) Philip J. Budd, *Numbers*, WBC 5, Da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4, 134.

8) H. Gressmann, *Mose und seine Zeit*, Kommentar zu den Mose-Sagen, Gö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13, 264-275.

종교'간의 두드러진 투쟁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약한 억지 논리에 근거를 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비평가들은 자신의 노선에서 다양한 편집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본문의 통일성을 거부하지만 성경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정경의 현재 형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본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모세의 선지자 직의 유일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9)]

1.2. 본문의 상태

1절, 칠십인 역은 마소라 본문의 *kušit*를 Aithiopisses(이디오피아)로 번역했고, 탈굼 옹켈로스는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했다. 라틴어 불가타와 *KJV*, Louis Segond의 불어성경과 *NKJV*도 LXX를 따랐다. 그러나 구스여인을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볼 필요는 없다.

3절, 커티브 *`ānāw*는 커레이 *`ānāiw*로 읽어야 한다. 의미는 같다(겸손한).

4절, 마소라 본문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했는데 칠십인 역은 1절의 순서에 맞추어서 일관성있게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번역했다.

6절, 마소라 본문의 *n^{e}bī^{ā}kęm* (너희의 선지자)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Gesenius는 이것을 "너희 선지자가 야웨의 선지자라면"라고 번역했다.[10)] 그러나 *n^{e}bī^{ā}kęm* 과 뒤 따르는 단어 yahweh는 연계형과 독립형의 속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번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9) Cf. Jacob Milgrom,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93.

10) Wilhelm Gesenius-E. Kautzsch, *Hebräische Grammatik*, 28te, Leipzig, 1909, §128 d (GK).

그 번역이 가능하려면 야웨 앞에 속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l}* 를 넣어서 *^{l}yahweh* 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의미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n^{e}bī^{ā}kęm* 을 *nābī bākęm* (너희 가운데 선지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8절, 칠십인 역은 마소라 본문의 *^{e}munat* (형상)를 *doxa* (영광)로 번역했다.

12절, 칠십인 역은 *wsei ektrwma* (낙태와 같이)를 첨가했다. 이것은 설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15절, 칠십인 역은 *ekatharisthe* (그녀가 깨끗하게 되었다)를 첨가했다. 이것은 문둥병에 대한 레위기의 규례(레 14:9)를 준수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설명으로 보인다.[11)]

2. 본론: 주석적 설명

2.1. 미리암과 아론의 반란(1-2)

1절 상반절의 번역은 전치사 *b^{e}* 때문에 두 가지가 가능하다. 즉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에 '대항해서' 비방했다는 것과 모세에 '대해서' 비방했다는 것이다.[12)] 전자는 모세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다. 모세의 지도자적 자질을 문제삼기 위해서 비난했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래서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비방이다.

11) Cf. Budd, op.cit., 132.

12) "비방하다"란 동사는 단수, 여성형으로 쓰여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것이다. GK §146 g. Paul Joüon ,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translated and revised by T. Muraoka I-II, Rome, 1991, §150 q.

본문의 반란은 다른 반란 사건과는 달리 가족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지도자를 비난하다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서 교인이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면 벌을 받는다고 설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다툼은 단순한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도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미 6:4).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였다(출 15:20). 그래서 이것을 교역자와 성도간의 갈등으로 볼 수는 없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것은 마치 결혼문제가 이 본문의 또 다른 주제인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렇다면 모세의 결혼에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는 이 본문과 관련된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본처를 두고 구스 여인을 또 얻어서 일부다처제를 따랐는지, 아니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후 팔순이 된 이 노인네가 아리따운(탈굼역) 구스 여인과 광야에서 재혼을 했는지, 아니면 Augustine이나 Calvin의 말대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바로 이 구스 여인이었는지[13]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래도 이 중에서 그 가능성을 찾는다면 아마도 그 구스 여인이 바로 십보라일 것이다.[14] 구스는 칠십인 역과 라틴어 역에서 번역한 이디오피아[15]가 아니라 아라비아 서쪽을 포함한 훨씬 더 넓은 지역을 가리킨다. 그래서 아라비아 서북쪽의 미디안 지역이 될 수 있다(합 3:7).[16]

13) John Calvin, *Harmony of Exod., Lev., Deut., Numb*, Vol. IV, Grand Rapids, Michigan: WM. Eerdmans Pub. Co., ND, 43.

14) F.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198-206.

15) 구스를 이디오피아로 보고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듯이 그리스도도 유대인이 반대하는 이방인인 교회와 결혼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cf. Vaulx, op.cit., 163.

16) Aharoni는 이집트 저주문헌에 팔레스타인 네겝 지역을 구스에 넣었다고 한다: Yohana Aharoni & Michael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77, 26.

그런데 모세가 결혼한 지 사십 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가족들이 그 결혼을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모세가 결혼한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가족들과 만난 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출애굽기 4장에서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간 보도를 읽을 수 있다. 그 후 가족들은 출애굽 준비와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의 결혼문제를 다룰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녀는 한 동안 모세와 떨어져있다고 이드로가 다시 십보라를 데리고 왔다(출 18:2). 이제는 광야여행의 절반을 지났으니 이 문제를 거론할 적절한 기회로 삼은 것 같다. 그렇다면 모세가 구스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것이다. 구약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신 7:3). 그러나 그것은 언약 즉 믿음을 근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십보라를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그녀는 야웨의 제사장의 딸이고 또 모세가 잊고 있었던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했다(출 4:25).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육신적으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본문으로 기독교인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한다면 본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1절에만 나오고 그 뒤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강조를 받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논쟁을 해결하면서도 다른 문제를 언급하셨지만 모세의 결혼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을 구실로 삼아서 모세의 선지자적 권위를 도전했던 것이다.[17] 물론 이 권위는 개인적 권위가 아니라 직분적 권위다. 그래서 모세의 결혼은 단지 그들의 비난의 실마리가 되었을 뿐이다. 이런 식의 비난은

17) Cf. H.M. Ohmann, *Tellingen in de woestijn*, Bedum: Scholma Druk, 1983, 77.

모세에게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모세의 말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예언직을 무시하기 위해서 모세를 비방하면서 그들도 예언자로서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들이 이르되 야웨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18]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2).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모세의 권위를 거절하였다.

이들의 다툼은 단순한집안 싸움이 아니고 지도자들 간의 싸움인 것을 고려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오랫동안 그들인 모세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세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마다 특정한 위치로 부르시고 각기 다른 위치에서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주권을 따라서 그 분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 동생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한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야웨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고 하면서 '우리도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동시에 '모세를 보라, 그는 결혼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셈이다.

2.2. 하나님의 심판

이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문의 '해설자'는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19] 사람이라고 증거했다(3절). 이것

18) 히브리어 본문은 이 의문문에서 '오직'(*raq*) 다음에 '정말'(*'akh*)이란 말을 넣어서 강조하고 있다.

19) *'ānāw m^{e}'ōd* (매우 온유한)의 *m^{e}'ōd*는 절대 최상급으로 쓰였다. *ānāw*는 겸손한, 온유한, 가난하고(잠 14:21), 약하고, 고통당하는(암 2:7; 시 10:17) 등으로 쓰였다.

은 덧붙여진 설명이지만 문맥의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20] 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다. 그 문제를 정당하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이다.[21] 여기서 온유는 자신의 불리한 입장을 벗어나려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모세의 침묵은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재판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사건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은 아무런 요청도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개입하신 것은 그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영화로 세우신 모세의 권위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서 침묵하실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회중의 질서와 백성의 복지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불러내셨다: "야웨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삼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4절). 그들은 마치 법정에 출두한 피고와 같이 야웨 앞에 서야 했다.[22] 그 세 사람이 회막 뜰에 나왔을 때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세우시고 말씀하셨다(5절). 하나님은 그들과 모세는 같은 예언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23] 나 야웨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6, 7절). 이것은 바로 선지자의 직분과 관련된 문제였다. 사실 그들도 선지자의 역할을

20) Cf. Budd, op.cit., 134.

21) Cf. Calvin, op.cit., 44.

22) Cf. C.F. Keil &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1, Edinburgh: T. & T. Clark, 1866-91, 702.

23) 히브리어 본문은 "야웨가 너희의 선지자라면"으로 번역해야한다.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n^{e}bi'akem* (너희의 선지자)를 *nābī bākem* (너희 가운데 있는 선지자)로 고치는 것이 좋다. Budd, op.cit., 132;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히브리어 구문론을 참고할 수 있다. GK §128 d;, Friedrich Eduard König, *Historisch-Kritisches Lehrgebäude der hebräischen Sprach*, I-III, Leipzig, 1881-18 § 277 d.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수단을 통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꿈과 이상(환상)이란 말이 그 수단이다.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다.[24]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다. 모세와 요엘은 함께 이것이 신약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될 것임을 예언했다(민 11:29; 욜 2:28). 이것은 오늘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의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계시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경이 완성되기 전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것도 예언자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들의 직분을 상기시키셨다. 그들은 꿈과 이상으로 계시를 받는 수준의 선지자들이었다.[25] 사실 그것도 중요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이라고 하셨다(7절). 종은 복종과 순종을 생명으로 삼는 자이다. '나의'라는 소유대명사는 주인과 종의 개인적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종이란 영예로운 타이틀이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서두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다(롬 1:1). 종은 주인의 권위를 교부받는다. 종은 종은 주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그의 생명이고 그의 영광이다.[26]

모세는 또한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였다. "나의 집"은 야웨의 집인데 이것은 성막을 가리키지 않는다. 야웨의 집은 바로 이스라엘 전

24) 꿈을 통한 계시: 창 20, 28:12; 40-41, 등; 환상을 통한 계시: 사무엘의 소명(삼상 3:15), 다윗의 언약(삼하 7:17), 선지서의 서두(사 1:1; 옵 1:1; 나 1:1).

25) Cf. Elias Auerbach, *Moses*, Amsterdam: G.J.A. Ruys, 1953, 107.

26) Cf. Ohmann, op.cit., 79.

체를 의미한다.[27] 그래서 그가 야웨의 온 집에 충성되다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야웨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인격 전체를 드려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뜻이다.[28] 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여했다. 야웨의 종으로서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낮은 위치에 있는 자로 평가 받는다(히 3:1-6). 그리스도는 장자로서 충성했지만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다고 증거한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존귀한 자였다.

이 장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부분은 8절이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야웨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마치 두 사람이 마주보며 이야기 하듯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직접 소통이 가능했다. 이러한 모세는 보통 예언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말한다. 사실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좀 희미하기도 하고 애매할 때도 있다.[29] 모세는 이런 거리감이 없이 직접 대면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입 대 입"(*pe el pe*)이란 말이다. 영어로 직역하면 mouth to mouth(*KJV*, *ESV*)인데 *NIV*와 *NKJV*는 이것을 face to face(대면)로 번역했다. 이것은 가장 친근한 관계를 말하는 관용구가 되었다.[30] 친구가 마주대하고 이야기 하듯이 친밀하고 자유스럽게 대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 더 분명하고 명백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다.

27) W.H. Gispen, *Numeri*, Commentaar op het Oude Testament, Kampen: Kok, 1959, 129.

28) H. Jargsma, *Numeri* deel 1, De prediking van het Oude Testament, Nijkerk: Callenbach, 196.

29) 렘 23:25-27에는 꿈에 의한 계시가 비난을 받는다.

30) C.J. Labuschagne, *peh*, in: E. Jenni & C. Westerman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TLOT*), Peaba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97, 978.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야웨의 형상'을 보는 특별한 자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예사로 비방하느냐고 하셨다. 야웨의 형상이란 시편 17:15에서 하나님의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문맥상 하나님의 특별한 현현과 관련된 말로 보인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특별한 사람이다(출 19:9, 16; 20:21; 24:18; 33:9, 11, 19ff.; 34:34). 아마도 하나님이 인간이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모세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을 것이다.[31] 이 신비한 계시 방식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변호하시고 그를 온 집 위에 높이시고 예언자로서 그의 특별한 위치를 견고케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에게 주신 위엄과 권위를 사람이 허물어 버리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9절). 사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은 장소를 이동해서 떠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여기서는 일의 종결을 의미한다. 또 상징적으로 구름을 언급하고 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고 하는데 구름이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다.[32] 이 구름이 떠나가는 것은 판사가 피고에게 선고하고 망치로 세 번 두드리며 그 언도를 확정한 후에 재판석에서 일어나서 떠나는 인상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심과 동시에 미리암은 벌을 받았다. 그녀는 문둥병이 걸렸다.[33] 그녀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비참한 신

31)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시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요 14:9)고 하셨다. Olson은 예수님과 하나님 간의 친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 Dennis T. Olson, *Number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6, 72.

32) Jenni는 구름을 계시의 특별한 매개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구름은 계시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E. Jenni, *`ānān, TLOT*, 938.

33) *tsara`at*는 현대인이 생각하는 한센씨 병과는 다른 악성피부병으로 본다. 한센씨 병은 미

세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미리암만 벌을 받았느냐는 것이다(10절). 죄는 함께 지었는데 하필이면 여자만 벌을 받고 아론은 벌받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물론 여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을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34] 그것은 미리암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1절에서 확인된다. "비방하다"란 동사는 단수, 여성형으로 쓰여 있다(*t^e dabber*). 그래서 1절의 정확한 번역은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것이다.[35] 미리암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여성형으로 기록되었겠지만 이것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선동한 주도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녀가 본보기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문둥병은 영원한 형벌은 아니지만 중한 벌임에 틀림없다. 물론 미리암이 걸린 병이 현대적 의미에서 한센 씨 병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충격을 받은 아론의 진술은 문둥병 증상을 보여준다: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12절). 제사장은 문둥병을 진단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이 병이 사산한 아이로 비유하고 있다. 미리암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러나 문둥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한 불치의 병으로, 고질적인 병으로만 여기질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특별한 징표로서 사용하셨다(레 13,14). 문둥병은 살아가면

리암과 같이 하얗게 되지 않는다. Harrison은 이 단어가 병리학적인 이상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쇠퇴하는 피부조직의 넓은 부위를 덮은 일종의 암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R.K. Harrison, *Numbers*, Chicago: Moody Press, 1990, 197; cf. Ludwig Koehler, Water Baumgartner (ed.),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HALOT)*, Leiden: E.J. Brill, 1999, 1057.

34) Cf. R. Dennis Cole, *Numbers*, New American Commentary 3b,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2000, 206.

35) GK §146 g. Paul Joüon ,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translated and revised by T. Muraoka I-II, Rome, 1991, §150 q.

서 죽음을 보이는 질병이다. 하나님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살지도 못할 것이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하여 자신이 사망을 미워하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다.[36] 미리암은 이제 더 이상 예언자의 노릇을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 수도 없게 되었다. 그녀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벌을 받았다. 성경의 원리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형편없이 낮아졌다(눅 14:11). 한때 미리암은 얼마나 복받은 여인이었다.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수종들었던 자였다(출 2).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후 온 백성들이 기뻐 찬송할 때 그 백성들에 앞서서 소고치며 춤추며 높으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야웨를 찬송하던 미리암이었다(출 15:20-21). 그런데 이제는 그가 그 언약의 백성들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처참하게 되었다.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오늘도 그와 같은 엄청난 심판을 불러온다. 그것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2.3. 모세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모세의 특별한 권위를 재확인시켜주셨다. 미리암의 갑작스럽게 문둥병이 걸렸을 때 아무도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다. 아론은 순간적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문둥병이 걸려 피부가 눈과 같이 되어버린 그 누이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다.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자신의 권위로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는 그 동생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bī ʾdōnī*)라고 말했다.[37]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

36) Cf. John E. Hartley, *Leviticus*, WBC 4, Da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2, 188.

께 적용되는 말로써(출 4:10, 13; 수 7:8; 삿 6:13, 15; 13:8)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지극히 존경하는 대상에게 쓰는 표현이다. 아론은 모세의 우위를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처참한 지경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11, 12절).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로서,[38] 또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각 들어주지는 않으셨다. 이는 미리암의 죄가 너무나도 중한 것이기에 벌을 받아야 마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만 칠 일 후에 미리암이 나을 것이라고 하셨다.[39] 칠 일은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데 걸리는 표준 기간이었다(레 14:8). 물론 그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정결의식을 치루었을 것이다.[40] 그러나 그 고질병과 언약공동체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모세의 특별한 직분의 권위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는 특별한 예언자라는 점을 새롭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미리암은 출교를 당한 것은 아니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은 셈이다.

3. 결론: 적용

약 3400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예언자적 권위를 가졌다는 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인다. 모세는

37) 히브리어 *bī ʾdōnī*에서 전치사 *bī*는 여기서 높은 사람에게 간청할 때 간투사로 쓰인다(창 43:20; 44:11; 삿 6:13). Cf. *HALOT*, 121.

38) J. Alberto Soggin, *Israel in Biblical Period:* Institutions, Festivals, Ceremonies, Rituals, Edinburgh & New York: T.&T. Clark, 2001, 56.

39)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고대근동에서 마술적인 능력이 따른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무당이 행한 의식에서 '눈에 침을 가득 채워라'는 말과 '혀를 잘라라'는 말이 나란히 나온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마술적인 의미는 없다. 이 행위는 단지 수치를 의미할 뿐이다(신 25:9; 사 50:6). Migrom, op.cit., 98.

40) Cole, op.cit., 207.

이미 오래 전에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모세는 구약의 핵심 인물이다. 특히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모세의 예언적 권위를 통해 기록된, 모세 오경을 대하고 있다.[41] 우리가 모세의 예언자적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무시하는 것이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다. 모세의 예언자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경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오경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는 미리암이 받았던 벌과 꼭 같은 벌을 받게 된다. 물론 신체적으로 문둥병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문둥병자가 당하는 것과 꼭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된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또한 언약의 백성 가운데 설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와의 교제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무서운 벌로서 내용상 출교와 같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자는 언약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42] 예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모세의 글에 호소하셨는데(막 12:26) 그의 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에게 구원은 없다. 그가 회개하기까지는 결코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의 직분적 권위를 높이셨다. 그것은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41) Cf. S. David Sperling, Miriam, Aaron and Moses Sibling Rivalry, *Hebrew Union College Annual* 70-71, 1999-2000, 45: 이 논문은 모세가 한 예언이 오경(토라)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시기는 페르시아 아케메니드 시대라고 본다.

42) Milgrom은 미리암의 '문둥병'은 피부가 희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영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 예로 나아만 장군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왕하 5:1, 27). Milgrom, op.cit., 98. 그런데 아람에도 그런 제도와 규율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분명한 것은 본문은 미리암이 진영밖에 머물렀다고 언급한 것이다(민 12:15). 미리암이 병에 걸린 기간이 칠 일로 줄어들고 칠 일간 진 밖에 머문 것은 그 죄가 침뱉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참선지자 모세의 중보 때문이다.

역사신학

칼빈과 디아코니아

Calvin and Diakonia

이신열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126
2. 가난과 부에 대한 견해 ※127
   2.1. 중세교회의 견해에 대한 비판 ※127
   2.2. 가난과 부의 문제 해결: 성도의 교제 ※130
   2.3. 형평성(equity) ※133
3. 구호활동(almsgiving)에 대한 교리적 이해 ※136
4. 집사직(office of deacon) ※139
   4.1. 집사의 정의 ※139
   4.2. 집사의 자격 ※142
   4.3. 집사의 종류와 기능 ※143
5. 제네바의 구호활동 ※147
   5.1. 구빈원 ※147
   5.2. 프랑스 기금: 부르스 프랑쉐아즈(Bourse francaise) ※149
6. 나가는 말 ※153